

내년 예산 9727억원 편성

남원시, 시민 행복·사회복지 중점

남원시 20일, 시민들이 더 잘 살 수 있도록 9,727억원 규모의 2024년 예산을 편성하여 21일 시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첫째, 지역 재생을 위한 활력사업 예산을 대폭 편성한 가운데, 서남대를 '전북대 남원 글로벌캠퍼스'로 선정시킴으로써 교육·창업·문화거점 공간으로 되살리기 위한 부지매입비 205억원과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2억원 등 총 207억원을 편성하고,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정주 여건 개선과 정착지원을 위한 복합 생활거점 지역활력타운 조성단지 기본계획 및 설계용역비 15억 원을 편성했다.

둘째, 사회복지 분야에 2,488억 원을 편성해 전년 대비 228억원(10%)을 증액 편성해 새로운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빈곤·불안정 고용·주거취약 등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지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280억원, 정신요양시설 운영 및 기능보강사업

38억원, 스마트경로당 구축사업 33억원,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13억원 등을 편성했다.

또한 정부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남원형 어린이집을 시비로 2억4천만원 신규 지원하고, 아이가 행복한 수 있도록 아이맘행복누리센터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신규 개관해 운영하도록 13억 7천만원을 편성했다.

특히 교육기관 보조사업 22억원을 편성해 학생들에게 직접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며, 학생들을 위한 미래체육사업 15억원과 청소년시설 활동지원사업 25억원, 풋살장 조성사업 30억원, 복합형공공도서관 내년도 개관에 필요한 20억원을 편성하였고, 치매 환자가 늘어나며 돌봄 서비스를 본격 시행하기 위한 장비 구축비와 운영비 14억원과 상시 돌봄이 필요한 치매 환자에게 24시간 건강·안전·돌봄이 가능한 인공지능과 스마트 정보통신기술을 제공하는 계획이다.

셋째, 저출산·고령화 추세에 따라 생애주기별 맞춤형 출산·케어서비스 등 공공신후조리원 신축 50억원, 남원시 보건소 증축 39억원,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 26억원 등을 편성하였다.

넷째, 농로 용·배수로 기반시설 확충 지속 지원 예산 205억과 기본소득을 위한 직불금 420억원, 농산물가격안정화기금 40억원, 농작물 및 가축재해보험 42억원, 원예용 세미스마트팜 지원사업 10억원, 농기계 구입비 30억원, 농촌인력 해소를 위해 8억원을 편성했다.

다섯째,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52억원과 공동주택 지원사업 10억원, 안전보행 25억원을 증액하고, 바이오산업 32억원, 드론 레저스포츠 관광활성화사업 30억원, 일자리 창출을 위한 남원형 퀵스타트업 사업 3억원, 소상공인 지원사업 109억원과 합파우트 벨리 조성 64억원, 로컬관광 활성화사업 44억원, 민인공원 기본계획 용역 49억원, 유곡리와 두리리 고분군 발굴 및 정비사업 19억원, 산악용 친환경 운송시스템 시범사업 기반조성사업 12억원, 도시 카로망 정비 228억원 등을 편성했다.



심 민 임실군수가 주관벨기에대사관이 주관한 벨기에 국왕의 날에 초청, 참석해 임실군과 벨기에 간 우의를 다지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벨기에 국왕의 날 초청 참석

심 민 임실군수, 지정환 신부 삶 영화 상영·임실N속성치즈 등 선보여

심 민 임실군수가 주관벨기에대사관이 주관한 벨기에 국왕의 날에 초청, 참석해 임실군과 벨기에 간 우의를 다지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심 민 군수는 지난 17일 서울 아르선 재센터에서 열린 벨기에 국왕의 날 행사에 참석했다.

주한벨기에대사관의 초청으로 이루어진 이번 참석은 임실군과 주한벨기에대사관과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됐다.

벨기에 국왕의 날 행사는 벨기에의 왕조를 기념하기 위한 날로 이번 행사에는 외교단 정부 관계자 기업, 벨기에 교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개회식과 영화 상영 리셉션 순서로 이뤄진 가운데 영화 상영 시간에는 한국과 벨기에의 관계에 영향을 끼친 다섯 명의 인물에 대한 내용으로, 그중 한 분인 지정환 신부님의 삶을 다룬 내용은 참석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영화는 벨기에 국영방송사 티에리

로로 감독이 제작한 것으로 지난 10월 열린 임실N치즈축제장과 지정환 신부 삶터 등을 방문하여 촬영한 다큐멘터리다.

특히 영화에는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지정환 신부님의 발자취와 임실치즈의 탄생 등을 담았고, 임실N치즈축제는 지정환 신부님의 조카와 가족들이 임실을 방문하여 임실N치즈축제를 즐기고, 추모하는 모습 등을 다뤘다.

임실N치즈축제에서는 벨기에의 날을 운영하며, 벨기에에서 온 지정환 신부님의 가족들이 대표적인 파자인 와플 나눠주기 등 행사를 함께하며 방문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이어진 리셉션 시간에는 임실치즈&식품연구소에서 직접 제조·속성한 속성치즈를 벨기에 국기에 맞게 검정·노랑·빨간색으로 전시해 참석한 각계각층 인사들이 임실치즈를 맛보고 즐기는 시간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지역

임실군,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당부

농작업 수행·임산물 채취 등 야외활동 시기

임실군이 농작업 수행, 임산물 채취 등 야외활동이 증가하는 시기에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국내에서 주로 발생하는 진드기 매개 감염병은 쯔쯔가무시증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이며, 야외활동이 많은 중장년층과 면역력이 약해지는 노년층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쯔쯔가무시증은 진드기 매개

감염병 중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감염병으로 쯔쯔가무시균에 감염된 털진드기 유충에 물리면 10일(잠복기) 이내 발열, 오한, 근육통, 발진, 두통 등의 증상과 진드기 물린 부위에 검은 딱지(가피)가 생기는 것이 특징이다.

군 최근 4년간 발생 동향을 보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은 감소하였으나 쯔쯔가무시증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임실군 보건의료원에서는 각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에 기피제와 팔토시를 추가로 배부하고 있다.

김대곤 보건의료원장은 "진드기 매개 감염병은 야외활동 시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긴 팔 상의와 긴 바지를 갖추어 입고 기피제를 뿌리는 등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진드기에 물린 흔적이 있거나 2주 이내 고열, 구토 등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감기몸살로 가볍게 여기지 말고 의료기관을 방문해 치료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임실군, 제16기 농업인대학 수료식

임실군이 전문농업경영인 양성을 위해 운영한 농업인대학의 교육 과정을 마친 교육생들과 군청 농민교육장에서 수료식을 지난 16일 개최했다.

올해 임실군 농업인대학은 지난 3월에 개강해 11월까지 농업인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해 한우반(35명)과 복숭아반(32명) 과정을 편성해 교육생 67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론 및 현장 실습 교육, 교육생 포상 컨설팅, 선진지 벤치마킹 등 총 20

회 80시간의 체계적인 교육 과정을 진행하여 임실농업을 선도할 수 있는 61명의 전문농업경영인을 양성했다.

수료식에서는 2023년 임실군 농업인대학 교육 기간 중 자치활동에 공로가 많은 교육생에게 공로상(김삼기 이현준)과 전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한 교육생에게 학업우수상(한경호 박은철)을 수여했다.

수료증을 품은 한 교육생은 "농업인대학에서 배운 지식과 경험을 현장에 적용하여 효율적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순창군, 지역 아동센터 아동연합 체육대회 개최

순창지역아동센터연합회(회장 박진숙)가 지난 18일 팔덕면 체육관에서 '제9회 지역아동센터 아동연합체육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아동연합체육대회는 지난 2015년부터 시작돼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에게 건강한 신체활동과 가족 화합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소속감과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매년 실시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 아이들과 부모, 교사 등 1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행사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지역

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 중에 평소 품행이 단정하고 배운 것을 성실히 실천하는 아동에게 표창장을 시상했다.

이날 체육대회에서는 대명풍선을 옮겨라, 볼풀공 넣기 경기, 낙하산 경기, 줄다리기, 터널 통과하기, 계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큰 호응을 얻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이번 체육대회가 아이들에게 즐거운 기억으로 남고 사회성을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며 한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치즈

벨기에 출신 지정환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